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은 2021년 9월에 기획전 [자연문화덕후와 함께 하는 ‘우리나라 문화 속 생물’ 탐험!]을 개관할 예정입니다. 기획전에 전시할 전시콘텐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biophoto@ewha.ac.kr로 1)전시콘텐츠 모집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시고 2)이미지 파일 2개(문화이미지, 생물이미지)를 보내주세요.

**[ 자연문화덕후와 함께 하는 ‘우리나라 문화 속 생물’ 탐험!] 전시콘텐츠 모집 양식**

|  |  |
| --- | --- |
| 이름\* |  |
| 나이\* (누구나 참여 가능) |  |
| 이메일 주소\*(문의사항 발생시 연락을 위한 주소이며, 전시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) |  |
|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\* | 개인정보(이름, 나이, 이메일주소)를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 제공하고 기획전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. 이름( )서명 ( ) |
| 개인이 작성한 글과 사진 저작권 이용 동의\* | 제공한 글과 사진의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며,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에 활용함에 동의합니다. 이름( )서명 ( ) |
| 내가 탐색한 문화의 이름\* |  |
| 내가 탐색한 문화의 작가\* |  |
| 내가 탐색한 문화정보 (제작시기, 제작방법, 크기, 소장처 등) |  |
| 문화 사진 저작권 정보표시\*(저작물명, 저작자명, 출처, 이용조건) |  |
| 문화사진 출처 (인터넷링크주소) \* |  |
| 내가 탐색한 문화 속 생물의 이름\* |  |
| 내가 탐색한 문화 속 생물의 학명 |  |
| 생물사진 저작권 정보표시(저작물명, 저작자명, 출처, 이용조건) |  |
| 생물사진 출처 (인터넷 링크주소) |  |
| 한 줄 제목\* (3~8자 이내) |  |
| 작품을 보고 느낀 점\*(50자 내외) |  |
| 작품 속 문화에 대한 이야기\* (70자 내외) |  |
| 작품 속 생물에 대한 이야기\* (70자 내외) |  |

별표(\*)는 꼭 기입해주세요. 생물사진은 이대 자연사박물관 소장 사진으로 채울 수 있으니, 생물이름과 이야기만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.

**[자연문화덕후와 함께 하는 ‘우리나라 문화 속 생물’ 탐험!]**

 **전시콘텐츠 모집 양식(예시)**

|  |  |
| --- | --- |
| 이름\* | 최이화 |
| 나이\* (누구나 참여 가능) | 25 |
| 이메일 주소\*(문의사항 발생시 연락을 위한 주소이며, 전시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) | biophoto@ewha.ac.kr |
|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\* | 개인정보(이름, 나이, 이메일주소)를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 제공하고 기획전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. 이름( )서명 ( ) |
| 개인이 작성한 글과 사진 저작권 이용 동의\* | 제공한 글과 사진의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며,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기획전에 활용함에 동의합니다. 이름( )서명 ( ) |
| 내가 탐색한 문화의 이름\* | 흰소 |
| 내가 탐색한 문화의 작가\* | 이중섭 |
| 내가 탐색한 문화정보 (제작시기, 제작방법, 크기, 소장처 등) | 이중섭, 〈흰소〉, 1954년, 나무판에 유채, 30×41.7㎝, 홍익대학교박물관. |
| 문화 사진 저작권 정보표시\*(저작물명, 저작자명, 출처, 이용조건) | 흰소 4, 이중섭, 공유마당, 자유이용 |
| 문화사진 출처 (인터넷링크주소) \* | 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gongu/wrt/wrt/view.do?wrtSn=9022677&menuNo=200026 |
| 내가 탐색한 문화 속 생물의 이름\* | 소 |
| 내가 탐색한 문화 속 생물의 학명 | *Bos taurus* |
| 생물사진 저작권 정보표시(저작물명, 저작자명, 출처, 이용조건) | 백우, 농촌진흥청, 농촌진흥청 홈페이지, 공공누리 제 2유형 |
| 생물사진 출처 (인터넷 링크주소) | https://www.namdong.go.kr/photo/bbs/bbsMsgDetail.do?msg\_seq=94&cate1=season&bcd=namdong\_photo&pgdiv=season&pgno=15 |
| 한 줄 제목\* (3~8자 이내) | 백의 민족을 닮은 흰소 |
| 작품을 보고 느낀 점\*(50자 내외) | 2021년은 바로 흰소띠의 해입니다. 그래서인지 작품 속 흰소의 모습이 더 반갑고 정겹게 느껴지네요. |
| 작품 속 문화에 대한 이야기\* (70자 내외) | 황소를 흰색으로 표현함으로써 ‘백의 민족’이라 불리는 한민족의 형상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답니다. |
| 작품 속 생물에 대한 이야기\* (70자 내외) | 흰소는 유전적 원인으로 신체의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못하는 알비뇨 현상 때문에 생겨요. 뿔은 암수 모두 생기는데, 다른 짐승을 방어하는데 쓰여요. |